

하마스 2인자 레바논서 피살...보복·확전 위기 고조

전후 베이루트 공격은 처음...하마스·헤즈볼라·이란 보복 시사 레바논, 안보리에 '주권침해' 항의...유엔·프랑스 등 자제 촉구

레바논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수뇌부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피살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확산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새해 초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일부 병력을 철수하기로 하면서 전쟁 강도가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레바논에서 벌어진 이번 사건에 반(反)이스라엘 세력이 결집하며 오히려 중동전쟁으로 사태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유엔과 서방도 이번 사건에 우려를 표하고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예정된 이스라엘 방문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 숨진 알아루리, 하마스 2인자이자 알카삼 여단 창설멤버

3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께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쪽 외곽에 있는 하마스 사무실이 드론 공격을 받았고, 이로 인해 하마스 정치국 2인자 살레흐 알아루리를 비롯해 하마스 수뇌부 6명이 사망했다.

하마스 정치국장인 이스마엘 하니예의 부관인 알아루리는 하마스 무장 조직 알카삼 여단을 창설한 초기 멤버 중 1명으로, 서안지구에서 하마스 조직을 이끄는 동시에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와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

스라엘 총리는 이번 전쟁 발발 전부터 그를 제거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레바논 국영 매체들은 이번 공격이 이스라엘 드론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고, AP 통신 역시 이스라엘에 의한 공격이 명백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번 전쟁 기간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거점인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지역이 아니라 베이루트 지역에 대한 공격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스라엘이 가자지구가 아닌 타국에서 활동 중인 하마스 수뇌부를 제거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 레바논 "새로운 국면 끌어들이려는 의도"...이스라엘 저항세력 결집

사건 직후 나지브 미카티 레바논 임시 총리는 "레바논을 새로운 국면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이번

사건이 이스라엘이 레바논의 주권을 침해한 사건이라는 내용의 공식 항의서를 제출하라고 정부에 지시했다.

하마스 정치국장 하니예는 이번 공격을 "테러 행위, 레바논 주권 침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적대행위 확대"라며 "반드시 보복하고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진행 중이던 휴전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한 하마스 관계자는 알아루리가 지난해 11월 말 사사된 일시 휴전 당시 협상을 주도한 인물이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헤즈볼라도 "이스라엘의 알아루리 암살은 폭과 할 문제가 아니다. 저항 세력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얹고 있다"며 복수를 다짐했다.

무함마드 시타에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총리도 "뒤따를 수 있는 위험과 결과"에 대해 경고했으며, PA 집권 파타당의 라말라 지부는 3일 하루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서안지구에서는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거리로 나와 복수를 외쳤다.

중동 내 반이스라엘 세력을 이끄는 이란은 외부 부 설명에서 이번 사건을 레바논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한 '암살'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날 예정된 전시 내각 회의를 취소했다고 영국 BBC 방송이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종전까지 가자지구 전후 구상 논의를 꺼려왔으나, 전쟁 국면 전환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관련 논의를 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가 극도로 자제하고 역대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또한 계속된 전쟁에 따라 여러 주체들이 큰 오판을 할 위험이 있다면서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헤네다공항 항공기 충돌 2일 이후 일본 도쿄 헤네다공항 활주도에 착륙한 뒤 해상보안청 항공기와 충돌한 일본항공(JAL) 여객기가 완전히 불에 타 버린 모습. 이어객기 탑승객 379명은 전원 탈출했으나, 해상보안청 항공기 탑승자 6명 중 5명이 숨졌다. /연합뉴스

전쟁 격화...러·우크라 '최대 규모' 공방전

러 미사일 99발·공격 드론 35대 발사에 우크라 보복 공격

새해 시작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이 격렬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로 공습한 뒤 양측의 대대적인 공방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러시아는 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동남부 하르키우에 등지에서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수십대를 동원해 공습을 가해 약 1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작년 12월 29일 대공습을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이날 공격으로 최소 5명이 사망하고 100여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텔레그램에서 "러시아가 지난달 31일부터 약 170대의 사해드 드론과 수십기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러

시아가 쏜 미사일 99발 중 극초음속미사일 '킨잘' 10기, 순항미사일 59기, 칼리브르 미사일 3기 등 72발을 격추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러시아가 발사한 총 35대의 공격용 드론을 모두 격추했다고 덧붙였다.

전선에 충돌이 고조되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폴란드는 이날 우크라이나에 접경한 동부 일대에 F-16 전투기 4대를 추가 배치하며 "폴란드 영공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러시아는 미사일 122발과 드론 36대로 우크라이나 키이우 등 전역에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공습을 가했으며 약 4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이틀날 러시아 벨로로드 등에 대공습으로 공격을 감행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집속탄 등을 사용해 자국민 14명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트럼프 후보 자격 박탈' 콜로라도 대법원서 무장괴한 총기 난사

인명피해는 없이 자진 투항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 건물에 무장 괴한이 침입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해 주(州)에서 실시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법원이다.

AP통신과 CNN 등 미 언론은 2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경찰이 간밤에 콜로라도 대법원 건물 내부에 침입해 총기를 난사한 혐의로 남성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1시 15분께 덴버 시내에 있는 대법원 건물 앞에서 차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차량의 한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에게 권총을 겨눴다.

이후 총을 지닌 남성은 대법원 건물의 창문에 총을 쏘고 안으로 들어가 비무장 상태였던 경비원에 게서 건물의 나머지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받아낸 뒤 7층을 포함한 건물의 다른 부분으로 이동해 총을 여러 발 쏘았다.

그러다 이 남성은 새벽 3시께 911에 직접 전화했고, 자진해서 경찰에 투항하면서 상황은 종결됐다. 현장에서 부상자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경찰

은 밝혔다.

경찰은 보도자료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사건이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에 대한 이전의 위협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미 언론은 그러나 이번 공격 대상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판결을 한 법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달 19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州)의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용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제외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연합뉴스

"빈대를 찾아라" 프랑스, 빈대 탐지견 인기

올림픽 앞두고 '수색' 문의 쇄도

프랑스 파리에서 올해 7~8월 하게 올림픽을 앞두고 '빈대 탐지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파리지에 따르면 올림픽을 반년 이상 앞둔 시점인데도 빈대 탐지견 업체에 호텔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후각이 뛰어난 비글이나 래브라도, 저먼 셰퍼드 같은 견종을 훈련시켜 '빈대 수색'에 투입하고 있다.

파리의 호텔이 빈대 탐지견까지 써가며 예방에 나서는 건 지난해 프랑스 내 빈대 출몰 소식이 전

세계에 퍼져 망신살이 뻗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프랑스 영화관과 기차, 학교 등 곳곳에서 빈대가 출몰하자 미국 뉴욕타임스는 파리, 빛의 도시인가 불림의 도시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로 프랑스의 '빈대 사태'를 조실했다. 영국 BBC방송도 "2024년 올림픽을 앞두고 빈대가 급증하면서 파리가 빈대 공포에 휩싸였다"고 보도했다.

올림픽 기간 고객 유치를 하려면 '평판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탐지견을 예약한 호텔들은 흑여나 '빈대 출몰' 소문이 퍼질까 우려해 르파리지의 취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다. /연합뉴스

Inno-biz기업,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공공하수·공공폐수·공장폐수 고도처리 전문회사

-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 수질 측정대행업
- 공공하수도 (10,000㎡/일)미만 / 하수관로 관리대행업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TMS)
- 환경건설링회사, 환경관리대행기관
- 폐기물수집운반업, 해외건설업
- 총질소처리 공법(A2O4공법) 등 특허 4건, 실용신안 2건
-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시공, 기술자문
- 공공하수/공공폐수 처리시설 시운전 및 유지관리 운영

대기환경분야

-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 VOC Treatment System
- Solvent Recovery System
- SCR De-NOx System
- Sulfur(H2S) Removal System
- Dust Collection System
- 기술상담 및 자문

수처리용 미생물제, 수처리 기자재 제조

- 미생물제품: 질소처리용 종균제 (Nitcell-O) 하수/폐수처리용 종균제 (Negenzyme)
- 화학약품: 응결제, 고분자응집제, N,P영양제, 고효율 STS membrane 붕 산기판 (TMS-600+)
- 판형 산기판 (TMP-1000)
- 유기탄소원: 니트셀-C
- 천연고분자 키토산침강제 (Nexchy)
- 자동제어반, 교반기
- 부상조, 슬러지 건조기 등

1997 태림인드스트리어 법인설립
2011 수출확대발전, 수출유공자 수상
2016 나주시 스타기업 선정
2016 중소기업부정부청장상 (모범중소기업인)
2019 환경부청장상 표창 (환경보전 공로)

2020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2020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지정
2021 LG화학 우수협력회사 선정
2022 고용노동부 중소기업 선정
2023 국제청 모범업체 표창

본사, 공장) 58223 전남 나주시 남평읍 동촌로 19
Tel) 061-336-2588 Fax) 061-336-2587

태림인드스트리어

Homepage : http://www.taeri.co.kr
E-mail : master@taeri.co.kr

202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권기금사업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도움이 필요한 느린학습 아동이 '나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교사가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아동 지원내용

- 1 지원대상**
지역아동센터 이용 초등학생 중 인지·학습·정서·사회성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
- 2 전문인력(현장교사) 양성 및 파견**
느린학습자 특화교육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지역아동센터 1개소 당 1명의 현장교사가 파견
- 3 아동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인지·학습 강화 프로그램(주 2회)
정서·사회적응력 향상 프로그램(주 1회)

사업수행체계

지원 : 복권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복권기금)
관리·사업수행 : 남부대학교,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사업참여 : 지역아동센터 40개소, 참여아동 160명

아동지원체계

현장교사양성 > 지역아동센터파견 > 아동 프로그램지원 > 사회 구성원의 기본 역량 향상

본 사업은 복권위원회가 광주광역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복권기금 지원으로 경제적지능아동(느린학습자)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라는 사회적 가치 제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지역아동센터광주지원단
복권위원회
시장의열매